



## 남성해운

### Sendai항 기항 재개

남성해운(회장 김영치)이 9월 26일부터 미야기현 Sendai-Shiogama항 기항을 재개한다. Sendai항은 3월 11일 대지진 및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항만로테이션은 Loop 1이 Dalian, Qingdao, Pusan, Niigata, Tomakomai, Sendai, Pusan, Ulsan/Kwangyang 및 Dalian이다. Loop 2는 Ningbo, Shanghai, Pusan, Niigata, Tomakomai, Hachinohe, Pusan, Ulsan/Kwangyang, Ningbo다. Loop 3는 Pusan, Hamada, Akita, Toyama New Port, Pusan, Hakodate, Kushiro, Pusan이다.

## 동방

### 세계 최대 리액터 해상운송



한국 토종 중량물 운송선사인 동방(대표 김형곤)이 최근 아랍에미리트 루와이스 석유화학단에 설치될 세계 최대 규모의 중질류 분해 리액터 해상운송 프로젝트를 따내 주목된다.

동방은 지난 8월 13일 현대중공업에서 제작한 1,100톤 규모의 RFCC 리액터를 트랜스포터틀 이용, 울산항까지 육상운송한데 이어 1만 5천톤급 자항선 동방자이언트 3호에 선적해 UAE 아부

다비항으로 출항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동방이 GS건설로부터 따낸 루와이스 리액터 해상운송프로젝트는 앞으로 현대중공업 1차례, 두산중공업에서 2차례 등 총 4차례에 걸쳐 1,100~2,000톤급 리액터의 국내 육상운송 및 선적, 해상운송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006년 처음으로 1만 1,100dwt급 자항선 동방자이언트 1호를 신조한 동방은 2008년 1만 2,200dwt급 자항선 동방자이언트 2호를 신조한데 이어 지난해 또다시 1만 5,000톤급 자항선 동방자이언트 3호를 신조 인도받으면서 명실공히 국내 최고 중량물 운송선사로 입지를 갖추게 됐다.

동방은 또 지난 6월 삼성중공업 메가블록 운송용으로 투입되고 있는 1만 500톤급 자항선 동방자이언트 5호를 매입해 중량물운송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 동방자이언트 4호는 향후 2년간 중국 닝보 블록공장에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까지 메가블록을 운송하는 장기운송계약에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동방은 9월 싱가포르에서 1만톤급 자항선을 1척을 장기용선해 총 5척의 자항선을 가지고 국내외 중량물운송시장에서 영업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을 추진중에 있다.

## 대한통운

### 상반기 순이익 268억원

대한통운(대표 이원태)의 2011년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100%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통운의 2011년 2분기 및 상반기 영업(잠정)실적에 따르면 올 2분기 순이익은 122억원으로 전년동기의 36억원 대비 238.89% 증가했으며, 상반기 순이익은 268억원으로 전년동기의 136억원 대비 97.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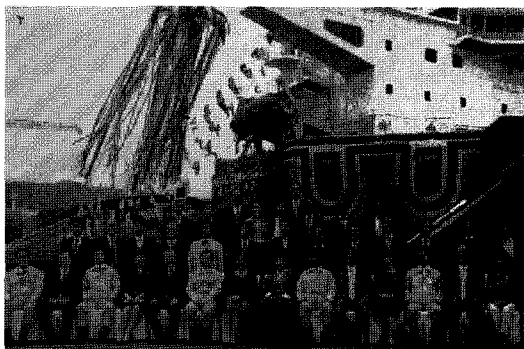
또한 올 상반기 1조98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함

으로써 1조원대를 돌파했고, 이는 전년동기의 9,934억원 대비 10.53%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2분기 매출액은 5,51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84% 증가했다.

한편 대한통운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502억원으로 전년동기의 497억원 대비 1.01%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메가라인

메가 카라반 2호 명명식 가져



해상중량물 운반선사 메가라인(회장 정준택)은 8월 24일 오전 옥포 대우조선해양에서 중량물운반선박 5호인 “메가 카라반 2(MEGA CARVAN 2)”호에 대한 명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명명식에는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의 최종애 여사가 스폰서로 나서 선박의 명명과 무사항해를 기원했으며, 메가라인의 정준택 회장과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 KCTC 이윤수 부회장 등 메가라인과 대우해양조선 관계자 120 여명이 참석했다.

정준택 메가라인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메가라인은 대우조선해양의 블록운송을 시작으로 유럽선사들이 독점해왔던 초중량화물시장에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점차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번 진수로 메가라인은 5척의 선단으로 아시아권에서는 명실상부 초중량화물 선두주자로 떠올

랐다”고 자축했다.

메가 카라반 2호는 선박 1척 당 1개사 원칙에 따라 설립된 메가라인의 계열사인 아이티더블유메가라인(ITW MEGA LINE)의 선박으로 케이씨티시와 휴맥스해운항공 등이 대주주로 참여했다. 1만 6500톤급의 메가 카라반호는 전체 길이 163미터, 폭 47미터로 STX엔진과 2개의 프로펠러를 장착하여 13노트의 속력으로 운항한다.

메가라인은 이미 운항하고 있는 메가 트리스트호, 메가 카라반, 메가 카라반 2호 총 3척을 내년 3월부터 호주 쉘브론(Chevron) 사가 주관하는 ‘고르곤 프로젝트’에 투입하여 26개월 동안 LNG 플랜트용 모듈과 파이프랙 운송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5척의 운반선을 보유해 초중량화물 운송 분야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게 된 메가라인은 도크와이즈, 빅리프트 등 네덜란드 선사가 장악하고 있었던 해상중량물운송사업에 2007년 사업 시작 5년 만에 초중량화물 운송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사로 도약해 세계적인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 봉신

희생가능성 인정받아

3월 11일 인천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던 봉신(사장 남택봉)이 지난 8월 8일 개최된 제1차 관계인집회에서 희생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파산부(재판장 김기정)는 조사위원 조사 결과 봉신이 계속해서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사업을 청산할 때 보다 가치고 크다고 인정됨에 따라 오는 10월 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8월 8일 판결했다.

파산부에서 희생가능성을 인정받은 봉신은 이에 따라 신고된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등의 채무변제 방법과 자본 감자 및 출자전환, 구조

조정계획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 작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지난해 4월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가 1개월여만인 지난해 6월초 채권단 공동관리절차를 밟겠다고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취하했던 봉신은 채권단 공동관리개시 이후 유상증자와 감자를 반복하며 경영이 전혀 정상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올해 또다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주물기업으로 2006년 선우해운과 합병되면서 외항선사로 성장해왔던 봉신은 2009년 KIKO에 따른 환손실과 해운불황에 따른 영업손실 등으로 712억원의 적자를 내고 자본금이 완전 잠식되는 등 경영이 크게 악화됐다. 코스닥 상장사였던 봉신은 자본금이 완전잠식된 지난 4월 상장이 폐지됐다.

## SK해운

케이프벌크 2척 매입  
상반기 영업이익 292억원

SK해운(사장 황규호)이 중고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2척을 통해 매입했다. SK해운은 KCH해운이 성동조선해양에서 건조해 올해 인도된 18만 dwt급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오션챌린지(Ocean Challenge)호와 콩췌스(Conches)호를 인수했다.

적당 인수는 최근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리세일가인 4,900만 달러보다 800만 달러 높은 5,800만 달러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SK해운이 이처럼 KCH해운의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2척을 인수한 까닭은 이들 선박들이 체결한 장기용선계약도 함께 인수했기 때문이다.

SK해운이 최근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리세일가보다 높은 선가에 선박을 인수했지만 현대상선과 장기용선계약과 함께 선박을 인수했다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케이프사이즈 벌크선의 일일 용선료는 1만 5천달러선이다.

한편 KCH해운이 이번에 SK해운에 매각한 케이프사이즈 벌크선들은 해운시황이 최고조에 달았던 2008년에 성동조선해양에 발주됐던 선박으로 당시 이들 선박의 신조선가는 약 8,800만 달러정도였다.

한편 2011년 상반기 SK해운의 영업이익은 292억원으로 전년동기의 474억원 대비 38.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반기 순이익은 65억원으로 전년동기의 126억원 대비 48.41% 감소했다.

8월 29일 SK해운이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연결포괄손이익계산서(SK해운+해외 현지 법인 포함)상 올 상반기 매출액은 1조2,134억원, 영업이익 292억원, 순이익 6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5.41%, 38.40%, 48.41% 감소한 실적이다.

또한 SK해운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 6,122억원, 영업이익 178억원, 순이익 51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별도포괄손이익계산서(SK해운)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매출액은 1조954억원, 영업이익 309억원, 순이익 15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STX팬오션

2분기 영업이익 523억원 기록

STX팬오션(회장 이종철)이 2011년 1분기 대비 영업이익 흑자전환을 달성했다. STX팬오션은 11일 공시를 통해 2011년 2분기 매출액 1조 5,203억원, 영업이익 523억원을 기록하면서 1분기 만에 대폭 흑자 전환 달성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누계 또한 매출액 2조 8,830억원, 영업이익 107억원을 나타내 2분기 실적으로 지난 1분기 적자분을 모두 상쇄했다.

STX팬오션에 따르면 이같은 실적 개선은 공급 과잉·운임하락·고유가 등 3중고(苦)로 국내 대

표 선사들이 모두 적자폭을 키우며 부진한 실적을 이어가는 와중에 유일한 흑자 전환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선제적인 위기관리와 경영 합리화에 주력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STX팬오션 관계자는 “사선 및 장기용선선을 포함한 지배선대를 장기운송계약에 투입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케 함으로써 시황 변동에 대비했다”며 “기타 용선선을 포함한 총 운용선대 규모를 탄력적으로 관리하면서 저렴한 용선료의 선박을 빌려 수익을 극대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동시에 선대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수익 구조를 개선했다”며 “노후 선박을 적기에 매각하고 신형 선박으로 대체함으로써 선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선 수익률을 높이고 연료 효율성을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유코카캐리어스 상반기 영업이익 589억

2011년 상반기 유코카캐리어스(회장 슈어갈통)의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두자릿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2분기 매출 실적은 6,276억원으로 전년동기의 5,591억원 대비 12.25% 증가했다. 또한 상반기 매출액은 1조1,752억원으로 전년동기의 1조344억원 대비 13.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업이익 및 순이익 부문에서는 전년동기 대비 두자릿수 감소한 실적을 보였다. 영업이익의 경우 2011년 2분기 39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8.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반기 영업이익은 58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6.65% 감소를 보였다.

순이익은 2011년 2분기 358억원으로 전년동기의 444억원 대비 20%에 달하는 감소율을 보였고, 상반기 순이익은 484억원으로 전년동기의

573억원 대비 15% 웃도는 감소율을 나타냈다.

한편 유코카캐리어스는 현재 모회사인 Wallenius Lines AB가 최초로 RoRo선(Roll-on Roll-off)을 개발, 일본자동차 생산업체의 해외운송을 시작한 이래 6개 선사(NYK, MOL, 유코, K-Line, WWL, Hoegh)가 전체 수송능력의 74.7%를 점유하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 장금상선 상반기 176억 영업이익 실현

장금상선(대표 정태순)은 2011년 상반기 매출 3,654억원과 176억원의 영업이익, 9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기록했다.

장금상선의 2011년 상반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매출액은 1,818억원으로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지만, 매출원가는 1분기에 비해 5%, 영업외수익도 186억원으로 44% 증가한 반면 매출총이익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전분기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외수익이 크게 증가한 것은 컨테이너박스 등의 자산 처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케이엘넷 스마트 화물운송정보망 사업 진출

케이엘넷(대표 정유섭)이 국내 최초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내수화물을 망라한 스마트 화물운송정보망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케이엘넷은 세방, 케이씨티시, 삼익물류와 8월 23일 스마트 화물운송정보망서비스 공동활용 및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9월 중순 경 시범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이엘넷의 화물운송정보망 특징은 우선, 제공되는 화물운송거래(이마켓플레이스)서비스 경우 화물 특성과 요구에 맞게 다양한 배차형태로 화

물·차량 매칭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화물운송시장 자원의 유동성을 감안해 운송망 가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잉여화물과 잉여차량을 공유함으로써 합리적인 가격과 수수료로 최적의 운송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 국토해양부가 진행할 정보망 인증 요건에 부합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최초 운송의뢰 단계부터 실적, 정산을 거쳐 향후 국토부 운송실적보고까지의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케이엘넷의 이번 서비스는 오는 9월초부터 스마트폰 단말기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있는 단말기와 통신료로 보급할 예정이며, 9월 중순부터 참여사들과 함께 연말까지 무료 시범서비스를 거쳐 2012년 1월1일부터 가입자 확대 및 본격적인 상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KSS해운

상반기 순이익 191억원

KSS해운(사장 윤장희)의 2011년 2분기 매출액은 216억원으로 전년동기의 264억원 대비 18.18% 감소했으며 상반기 매출액은 451억원으로 전년동기의 518억원 대비 12.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2분기 영업이익 및 순이익 부문에서는 전분기인 1분기 대비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 KSS해운의 영업이익은 192억원이며 순이익은 179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상반기 실적에 있어 전년동기 대비 100%를 웃도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1년 2분기 KSS해운의 영업이익은 2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4.55% 감소했으나, 지난 1분기 급격한 영업실적의 증가로 올 상반기 영업이익액은 217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 대비 117% 증가한 실적이다.

또한 순이익의 경우 지난 2분기 1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47.83% 감소했으나 올 상반기 순이익의 경우 지난 1분기 179억원과 2분기 12억원을 합친 19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93.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폴라리스쉬핑

상반기 영업이익 232억원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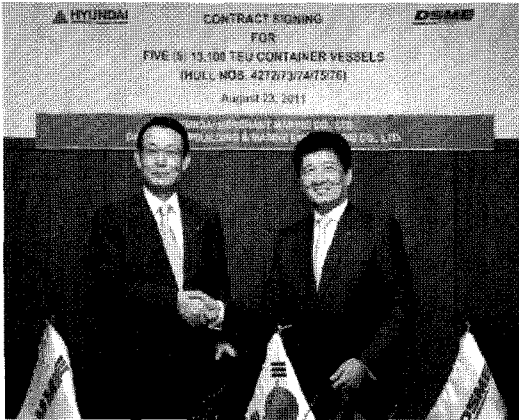
철광석수송 전문선사인 폴라리스쉬핑(대표이사 한희승/김완중)은 2011년 상반기 매출액 1,899억원, 영업이익 232억, 순이익 99억을 각각 기록했다.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80% 증가해 큰 폭의 신장세를 기록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감소한 배경은 상반기중에 추가 3척의 VLCC(초대형유조선)가 VLOC(초대형광석운반선)로의 Conversion (개조)작업이 진행돼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Conversion 완료된 2척은 상반기기를 기점으로 철광석수송에 투입됐고, 나머지 1척도 금년 하반기 중에 영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폴라리스쉬핑은 국내 최대인 11척의 VLOC선단을 운영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5위권 이내의 VLOC선단을 보유하고 있다. 이 선사는 VLOC 이외도 4척의 케이프사이즈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형선단에 적합한 장기계약위주의 영업에 집중하고 있다.

## 현대상선 초대형 컨선 건조계약



현대상선(사장 이석희)은 8월 23일 연지동 현대 그룹빌딩에서 대우조선해양과 1만3,1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5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건조계약 체결 서명식에는 이석희 현대상선 사장과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비롯한 양사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선박은 길이 365.5 미터, 폭 48.4 미터, 높이 29.9 미터로 축구경기장 4개를 합친 것과 같은 국내 최대 규모의 최첨단 컨테이너선이다.

한편 현대상선은 이 선박들을 2014년 1분기부터 인도받아 '아시아-구주항로'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이 선박은 2014년 파나마 운하 확장 시 파나마 운하로도 통행이 가능한 크기로 건조돼, 향후 '아시아-북미항로'에 투입될 수도 있는 다목적용이다.

## 한진해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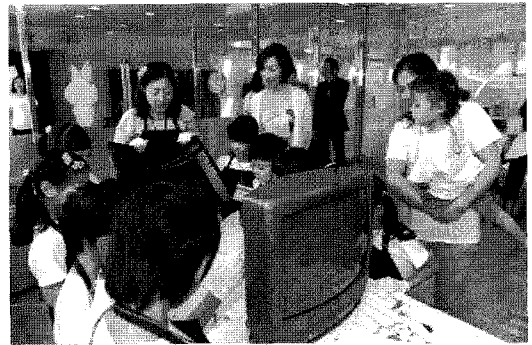
### 임직원 자녀 미술관 체험 실시

한진해운(사장 김영민)이 여름방학을 맞은 임직원 자녀들의 창의력 증진을 위해 미술관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8월 18일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한진해운을 비롯해 지주회사인 한진해운홀딩스, 해운/물류 IT 전문 회사인 싸이버로지텍의 자녀 22명을 초청, 故 백남준 작가의 작품들을 감상하고 TV모니터로 직접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보는 체험 활동 및 올해의 프랑스 미술전을 관람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최은영 회장이 직접 참석해 직원 자녀들과 식사 등을 같이 하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한편, 한진해운은 2008년부터 방학을 맞은 임직원 자녀들을 위해 컨테이너선 방선 및 생태체험 행사를 실시하는 등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사랑행사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 현대글로벌비스

### 영농 장애인 지원 나선다

현대글로벌비스(대표 김경배)는 영농 장애인을 위한 농산물 유통 전문 사회적 기업 '자연찬 유통사업단(이하 '자연찬')'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대글로벌비스는 '자연찬 유통사업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3년간 30억 원의 운영자금을 투자해, 2013년까지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연계고용 포함 30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하는 국내 대표 영농 장애인 사회적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경영지도에서 농산물의 생산-가공-포장-판매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유통 산업 전반에 대한 경영지원을 통해 영농 관련 사회적 기업이 농촌 지역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자립경영모델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연찬은 영농 장애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 전문 사회적 기업으로 그 동안 고품질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면서도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영농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연찬은 향후 농산물 생산·가공 시설 등 영농 장애인들을 위한 농업분야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향후 2,000개 이상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농업 경제 활성화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현대글로비스는 (사)한국영농장애인경영지원중앙회와 함께 영농장애인 생산 농산물에 대한 엄격한 품질관리, 통합 브랜드 구축사업 등은 물론, 중소 도매시장 납품, 학교·단체 급식 식자재 공급, 전문매장 개설 등 유통·판매망 확대에 주력해 사회적 기업 자연찬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 양현재단

건강장애학생 후원금 1억원 전달

양현재단(이사장 최은영)은 8월 24일 사단법인

더불어하나회 산하 꿈사랑사이버학교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양현재단이 지난 2007년부터 지속적인 후원을 펼치고 있는 꿈사랑사이버학교는 장기입원으로



학교생활이 힘든 백혈병, 소아암 등 건강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상강의를 제공하는 사이버학교로 초, 중, 고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이날 전달된 1억원의 후원금은 꿈사랑사이버학교 학생들의 학습지원뿐만 아니라 하계수련회, 문예창작대회, 심리치료를 환아들의 꿈을 키우고 완쾌의지를 북돋는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유입 쓰레기 수거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박인섭)은 금번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하여 바다로 유입된 쓰레기 수거를 위해 항만 청소선 19척을 동원, 전국 13개 무역항에서 연일 수거작업을 실시하였다.

공단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약 2,000톤의 해양부유쓰레기를 수거·처리했으며, 이중 7월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수거된 해양부유쓰레기가 1,515톤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한해 수거된 부유쓰레기의 40% 이상에 달하는 수치며, 현재 전국 항만에서 수거작업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마산지역의 경우, 항만 입지여건 상 만조 시 항만 내 유입되는 부유쓰레기가 간조 시에도 항만의로 유출되지 않고 조류에 따라 항만 내에서 표류하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단기간 중부지방을 강타한 호우로 인해 육상에서 발생한 수해쓰레기가 바다로 대량 유입되어 인천, 평택, 군산 등 일부 항만에서도 수거작업에 상당한 시간과 작업 인력 및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바다로 흘러든 쓰레기는 초목류가 가장 많으나 폐어망, 플라스틱 및 스티로폼 등 각종 생활쓰레기와 산업쓰레기 등 매우 다양하다. 심지어 냉장고, TV, 선풍기 등 버려진 가전제품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해양부유쓰레기는 항만 경관 훼손은 물론 해양오염을 가중시키고, 항행중인 선박의 스크루에 감겨 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적기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공단차원의 쓰레기 수거노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일위 위해서는 무심코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사람들의 의식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산, 인천, 울산, 여수 등 전국 주요 13개 무역항에 19척의 항만청소선을 상시 배치, 적극적인 수거작업을 통해 해양

환경 보전과 선박안전운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하며 “아울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민과 도서지역 주민, 관광객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한국해운조합

해운조합, 저소득층 아동과 섬여행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인수)은 8월 5일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섬마을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석모도 여행’ 행사를 실시했다.

사회복지단체 굿네이버스와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저소득 가정, 기초생활수급대상 가정, 한부모 가정 아동 등 약 80여명이 초청됐으며 갈매기 먹이체험, 민머루 해수욕장 갯벌체험 등 섬문화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했다.

해운조합 이인수 이사장은 “어린 시절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꿈과 미래를 상상하고 성장해 나간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상황 등으로 여행체험의 기회가 적은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운조합과 행사를 함께 진행한 굿네이버스는 국제 구호개발 NGO로서 국내 및 북한, 해외 저개발 국가에서 전문 사회복지와 구호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합과는 작년 5월 아동복지사업을 위한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해양소년단

한강 해양레포츠체험교실 실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총재 황규호)은 오는 10월 15일까지 한강시민공원에서 청소년 및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한강 해양레포츠체험교실’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강 해양레포츠체험교실’은 한강의 5개 지구(이촌지구, 양화지구, 반포지구, 뚝섬지구,





여의도지구)에서 딩기요트, 크루즈요트, 카약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오는 10월 15일까지 매일 진행이 되어 평소 체험하기 어려운 귀족스포츠인 요트(딩기요트, 크루즈요트)와 카약을 무료로 체험하는 동시에 청소년과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은 활동 전 철저한 준비운동과 안전수칙을 준수함은 물론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서울경찰청(한강순찰대), 해양경찰청의 도움으로 119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인근 병원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육상과 지상에 인명구조요원과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선을 운영함으로써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접수 전용 팝업창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한강 해양레저스포츠체험교실'은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 주최하고 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서울경찰청(한강순찰대), 해양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후원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상레저스포츠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와 인구의 저변확대로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항 e-소식지로 소통 강화하세요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서정호)가 평택항 e-소식지를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펼치고 있다.

8월 19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따르면 평택항 e-소식지는 7월까지 해운항만 물류업계 등 관계자 1만3천여명에게 전송됐다.

평택항 e-소식지는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제작되고 있으며, 매월 평택항의 주요소식 및 다양한 정보를 담아 현 고객과 미래 잠재고객에게 전달되고 있다.

평택항만공사 김정훈 홍보과장은 "온라인 뉴스를 통해 고객과의 유대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동반성장의 파트너인 고객에게 더욱 유용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소식지에 대한 해운항만 물류업계 반응도 호의적인 것을 알려졌다. 한편, 경기평택항만공사는 e-소식지를 비롯 블로그, 일대일 마케팅을 적극 펼치는 등 고객관계관리 강화에 더욱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평택항 e-소식지를 무료로 받고 싶은 업체나 일반인은 경기평택항만공사 홍보마케팅팀(031-686-0675)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gppc.or.kr)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신항 유류중계기지 건립사업 본격화



부산항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유류중계기지 건립사업이 본격화된다.

부산항만공사(사장 노기태)는 8월 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부산마린앤오일(주)(사장 최건식)과 부산항 신항 선박급유 및 유류중계기지 건립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마린앤

오일(주)은 한진해운과 삼성물산, 씨엘 등이 참여해 만든 법인이다.

유류중계기지는 정박 중인 선박에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시설로, 동북아 물류 거점을 지향하는 부산항의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로 꼽혀왔다.

BPA는 지난해 4월 이 사업을 위한 제3자 민간 사업투자자를 공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환경성영향 평가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이번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유류중계기지가 들어서는 곳은 신항 남컨테이너 터미널 부지 옆(붙임 참초) 6만3,000㎡로, 유류저장탱크(18기)와 제티(부두), 배관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되며 총 3,2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올해 착공에 들어가 2014년 완공이 목표다. BPA 관계자는 “유류중계기지가 건립되면 부산항을 기항하는 대형 선박들이 싸고 편리하게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다”며 “부산항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에 이상조씨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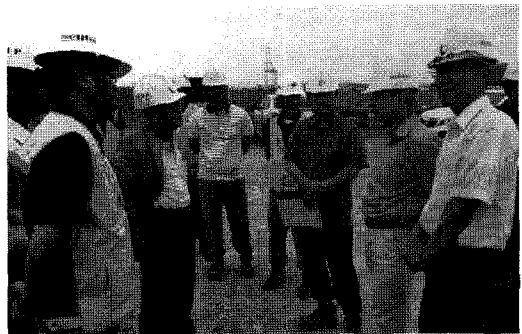


8월 19일 출범한 여수광양항만공사 초대 사장에 이상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이 임명됐다. 8월 17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이 밝히며

“이상조 초대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그동안의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조직역량을 빠르게 결집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조 초대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경상남도 도의원 출신으로 밀양 시장을 거쳐 한국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를 구성했다. 항만위원으로는 노창균(목포대 교수), 정두섭(여수광양항만물류협회 회장), 최동현(코아시스템기술 대표), 박수만(선진회계법인 이사), 설균태(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비상임감사), 신평식(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황성현(여수항도선사회 회장)을 임명했다.

## 울산항만공사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울산항만공사(사장 이채익)는 주요 공사현장의 안전성 확보와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절기 및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하였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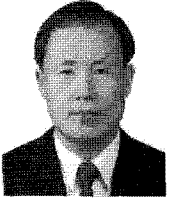
이번 안전점검은 지난 7월 위촉된 항만건설 분야 청렴옴부즈만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울산신항 배후단지 조성공사, 장생포 고사천 호안정비공사, 해운항만 비즈니스센터 등 주요 건설현장과 취약지역이 대상이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실태, 풍수해 대비 자체 안전점검 및 보완사항, 취약지역 종합적 안전점검 등이 시행되며 청렴옴부즈만으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았으며 미흡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즉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였다.

한편, UPA의 청렴옴부즈만 제도는 외부전문가

에 의한 투명한 감시·점검을 통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7월 항만건설·운영, IT, 회계, 법률 5개 분야에 8명이 위촉되어 현재 활동중에 있다.

## 인천항만공사 제3대 김춘선사장 취임



인천항만공사 제3대 사장으로 선임된 김춘선 사장이 8월 18일 오후 4시 공사 사옥 2층 대회의실에서 이상용 항만위원과 문해남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등 해운항만 관련 기관

및 업계 관계자, 임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집무에 들어갔다.

김춘선 사장은 취임식에서 인천항의 부흥을 위해 고품질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보, 인천항이 대한민국의 관문항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국제여객터미널의 건립, 항만기능의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인천항의 체질 강화를 통한 글로벌 물류시장 진입, 공기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 완수 등 경영목표를 제시하였으며, 공사 임직원에게 도전(Challenge), 창조(Creation), 변화(Change), 헌신(Commitment)의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하였다.

## 한국해양대학교

### 새터민 해양꿈나무캠프 개최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오거돈)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이하 영남씨그랜트)은 8월10일부터 8월 11일 양일간 새터민과 함께하는 해양꿈나무캠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산 YWCA 새터민지원센터와 한국해양대 평생교육원이 공동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낯선 땅



에 새 등지를 뜬 영남지역 새터민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새터민 청소년들은 한국해양대 수역 일원에서 해양레프팅, 워트슬레이트, 레저카누, 스노클링 등의 해양레포츠를 체험하고 한국해양대 실습선(한나라호)을 관선과 해양관련 영화감상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해양과의 친밀감을 형성했다.

영남씨그랜트의 송화철 단장은 "이번 캠프가 새터민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를 알아나가는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바다와 인접한 영남 지역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새터민을 비롯한 많은 청소년들이 해양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늘려 해양 분야에 대한 청소년들의 잠재된 적성과 재능을 발견하는 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해양대학교는 8월 10일 오후 실습선 '한바다호'를 이용해 독도와 울릉도를 방문하는 '바다사랑 국토사랑 2011 독도·울릉도 탐방행사'의 출항식을 갖고 항해에 나섰다.

오는 8월 1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전국 100여개 고교 진학담당교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180여명이 참가하는 국내 유일의 선상 대학입시설명회로, 올해 17회째를 맞아 더욱 알차고 풍성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해양대는 참가자들에게 2012학년도 입시설명회를 비롯해 국토 최동단 독도에서의 해맞이, 울릉도 일주, 영토 분쟁 관련 특강 등의 프로그램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영토 및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계획이다.